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 136:1-26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감사하고 사는 사람인가를 한번 점검해 본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뜻이 있는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은 두 천사에게 각각 바구니 하나씩을 주고 인간 세계에 가서 한 바구니에는 ‘기도’를 한 바구니에는 ‘감사’를 담아오라고 명령했답니다. 얼마 후 두 천사가 바구니를 가지고 올라오는데 기도를 담은 바구니는 더 이상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담은 바구니는 겨우 서너 개의 감사만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꼬집어 한 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요구할 것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감사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세계 여러 종교 중에 감사절을 지키는 종교는 별로 없습니다. 불교에도 감사절기가 없고, 힌두교에도 없습니다. 그에 비해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구약성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 년에 세 차례나 감사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에는 나라 밖에 있는 온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신약성서에서는 아예 날짜를 정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예 감사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감사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축복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감사하는 민족을 세계에서 뛰어나게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합니다.”라는 말 일겁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니다. 추수감사절도 그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 받은 민족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본질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기대했던 것도 바로 감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 찬양을 받으시기 원했고 감사를 받기 원했습니다. 이사야 43:21 에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창조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은 사람의 마땅한 도리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범죄하고 난 다음부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은 병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어떤 엄마가 일곱 살 난 아이를 데리고 이웃집에 놀러갔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이 아이를 보고 ‘너 참 예쁘구나.’라고 말하면서 사과를 하나 주었는데 이 아이는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도 없이 얼른 받기만 했습니다. 민망한 아이의 엄마가 “어른이 사과를 주실 때 뭐라고 해야 되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잠깐 생각하더니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껍질 벗겨주세요.” 감사를 잃어가는 이 세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타락과 부패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 속에서 감사의 마음을 잃은 것이 타락의 시작입니다. 언젠가 마틴 루터는 ‘마귀에게는 감사가 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불평은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 누가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마음에는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이들은 곧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자유를 얻고 돌아와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부른 노래입니다. 이 시를 자세히 읽어가다 보면 감사로 가득찬 시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해도 되는데, 그렇게 노래하지 않고 매 절마다 “...을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긴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드려하는가, 곧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는 “...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6 절을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늘’이라는 말은 ‘무한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 지혜가 무한하고, 그 지식이 무한하며, 능력과 권세가 무한하고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분량이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신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하늘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분이 바로 유일한 창조자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분,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함은 이 모든 것이 그 분에게서 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감사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사할 거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다고 감사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감사할 두 가지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 육신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흔히 이것을 ‘일반적인 은혜’ 또는 ‘자연적 은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마 5:45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취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리게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일반적 은혜란 신자나 불신자나 누구에게나 주는 은혜입니다. 햇빛을 의인에게만 비취주는 게 아닙니다. 악한 사람에게도 비취줍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공기를 모든 사람이 함께 호흡합니다. 이게 일반적 은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일반적인 은혜에 대해서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흥미 있는 것은 일반적인 은혜는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잃어버리면 알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야 비로소 평소의 건강함에 대해 감사하는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사람이 있습니다. 오염된 물과 더러워진 환경을 보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슨 특별한 기적만이 감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매일 매일의 건강한 삶, 매일 매일의 평탄한 삶이 감사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할 내용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에 대한 것입니다. 본문 10-24 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습니다. 히브리인으로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모든 민족중의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셨습니다. 본문 23-24 절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또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중에서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신분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식들로 어둠에 속해 있었습니다. 세상의 소망이 없이 살았습니다. 내가 왜/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가치관과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표류하는 배처럼 방황하며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비천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인 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런 신분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엡 2:8-9).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감사를 잃었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어 주신 놀라우신 은혜를 보는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특별한 기적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은총에 대해 감사함으로 감사의 바구니를 채워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바구니만을 채우지 말고 감사의 바구니를 채울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감사의 바구니가 가득 가득 차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